

# 서울시내 일부 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사업내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정문희\*, 조정민\*, 이수연\*\*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한양대학병원

1960년대 이후 고속화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가속화 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발달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이다. 산업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로 인한 인명손실이나 업무상 질병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유해요인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데다가 공업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직업병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4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장수의 86.5%를 차지하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이 2.02%로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 0.83%보다 배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중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하거나 작업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국고지원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기존자료들은 사업의 수혜자인 근로자, 사업주, 회사내 보건관리자의 주관적인 경험의 내용들을 반영한 평가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혜자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이용하여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실 사업장에서 실용성이 있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방안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